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와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intenance of Continuity of Operation for Defense Disaster Management and Cultivation of Disaster Specialized Forces

장호진* · 양승원**

Jang, Ho-Jin · Yang Seung-won

요약

본 논문에서는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접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방 재난관리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상군의 기본임무로 인식,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군사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단순한 대민지원성격의 재난관리기능은 여전히 법적,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발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의 작전상황에 부합되는 정보·과학기술군으로의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군의 재난 지원부대 임무를 기본임무화에 부합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 육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과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Keywords : 포괄적 안보,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재난전문부대

1. 서론

군은 재난발생 지역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재난관리 지원자로 그 현장에 투입되는데 현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군 조직을 유지하면서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연계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를 위하여 국방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며, 나아가 재난전문부대의 운용을 점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른 국가 재난관리체계와의 연계 미흡과 재난시의 예비군 동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군의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국가적 재난에 대한 지원임무가 가능할 수 있는 재난전문부대 육성의 필요성과 운용에 대해 제안하였다.

2. 본론

2.1. 군의 지원개념 확립과 재난전문부대 육성

대형재난시 국민의 욕구는 더욱 많은 군에 대한 기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총 16개 광역시·도는 13개 협력부대가 담당하고 236개 시·군·구는 188개 협력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등 중복지원 사례도 많이 있으며 재난대비훈련 지원활동이 일회성으로 수행되고 있는 현 체계에서 평시 계획적인 재난예방활동 등이 요구된다. 군은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은 물론 국가적 재난에 대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지자체의 물적, 인적, 동원 요청에 대하여 지원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을 해 왔으며 항공기 및 선박 조난사고에 탐색구조본부와 탐색구조부대를 설치·운영하여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군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잠정적 또는 이중으로 임무를 부여하여 자치단체장의 응급조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 재난관리의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 재난관리체계와 조직내에서의 개혁방안만을 구상하기 보다는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방 재난관리 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2.2. 재난전문부대 운용

재난전문부대는 작전사령부별로 2개 부대를 운용하며 대규모 재난대비 전문성과 기동성을 보강하여 책임지역내 일반재난 구조부대를 보강하고 전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생존자의 탐색구조활동을 전담하는 탐색구조기능, 부상자

* 준회원·(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jjjanghojin@hanmail.net

** 우석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yangy123@woosuk.ac.kr

응급처치와 영현처리를 위한 의료처치 기능, 장거리 신속한 투입을 위한 수송 및 운반기능을 구비하여 명색이 전군 지원임무를 가능할 수 있게 한다.

국방부와 합참이 분담하고 있는 군 재난관리체계를 군부대 병력 및 장비의 운용 및 원활한 통제를 위해서 군령권을 갖는 합참에서 제한없이 지시가 가능한 체계로 정립하고 합참에 정책지원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있도록 체계화하고 재난전문부대의 임무수행 및 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해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작성하여 엄중한 안보상황에서도 국방 재난관리의 기능연속성을 확보하고 능동적인 재난관리 임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결론

군이 보유하고 있는 탐색 및 일반재난구조부대 외에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전문화된 인력 및 자산 등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전투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어야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지원을 해야하는 제한적 일 수 밖에 없는 현 체계하에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능동적인 지원체제로 전환 뿐 아니라 국가 재난관리체제와의 연계와 재난지원 능력 확충 등을 통하여 군의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태세 완비와 국가적 재난에 대한 지원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 이는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군의 위상 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글

(사)한국재난정보학회와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첫 학술대회에 논문을 연구하고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며 재난안전 및 재해경감활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다른 도전의 기회가 되었다.

참고문헌

- 김민호, 서상원 (2017) 우리나라 국방 재난관리 체계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13(3)
유용진 (2017) 포괄적 안보측면에서 재난발생시 군의 역할 증대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국내석사
전용국 (2016) 포괄안보 개념하 군(軍)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역할 강화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 32(2호)
육군 육군재난관리 홈페이지 <http://jehe.hp.army.mil>